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5월 후원미사는 15일, 6월 후원미사는 19일, 7월 후원미사는 17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17년 3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27,147,002	전월이월금	5,126,034
지 로	2,004,060	우리은행	10,520,908
국민은행	4,199,000	하나은행	1,106,000
조흥은행	95,000	신한은행	1,220,000
외환은행	457,500	제일은행	250,000
농 협	1,365,000	기업은행	288,500
우 체 국	45,000	지정기탁	470,000
		교구보조	-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7,0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벳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6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소 계	10,5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0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4,785,000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470,000	신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20,780,000	잔액(이월금)	6,367,002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신부님글

### 즐거운 중에도 주님을 섬겨리

간밤에 조용히 지나가는 비의 자리도 잠시, 시원한 빗줄기가 되어 우울함의 흔적을 지우듯 새로운 모습으로 하루 하루를 맞이합니다. 성지주일을 며칠 앞 둔 주간이지만 소식지가 전달되는 시기가 부활절이기에 미리 후원회원 여러분들께 부활의 인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하나?"(마태오28장9절)

지난해까지는 노동사목위원회 신부님들과 인사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목을 알리고자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님과 제가 격월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혹시 나 제 글이 졸필이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국내이주사목실무자 연수가 2박 3일간 안양의 아론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하는 189명의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인종주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각자의 체험을 나누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연수 내내 강의를 듣고 실천을 나누면서, 제가 오랜 기간 이주민들과 함께 하였기에 다른 문화나 인종, 국가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이들은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였기에 편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계속되면서 호의적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판단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주민들에게 다가가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고 사건을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미리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혜자, 선주민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강요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본래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를 반성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어느 중학교의 시험지 앞면에 단 두 명의 한국학생을 위해 "힘내라"라는 한글과 26개의 언어로 적혀있는 영상을 보면서 저의 사목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주민의 언어나 문화가 아닌 한글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아직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해야하고 실천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또 다시 부활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였다고 하여 머 무른다면 고정화되어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시 부활을 향해 나아가면 더 넓은 세상과 문화와 인종을 만나게 되고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들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부활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후원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 제103차 이민의 날 담화문 요약본

### “취약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동 이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는 4월 30일은 제103차 세계 이민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이들이 고국을 떠나 이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6년에 국내체류 이주민 200만 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7년 세계 이민의 날 교황 담화를 통해 이주 현상은 구원 역사의 일부임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교황님은 "교회는 이 문제의 복잡성을 모르는 바 아니며, 흔히 이주와 관련된 고통과 비극, 그리고 이주민들을 정중하게 환대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인간은 짐짝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는 인간, 특히 아동 이민과 같이 취약한 상태에 처한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그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중에서도 교황님은 아동 이민을 위한 보호, 통합,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시며 시급한 구호와 지속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교황님의 사목적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동 이민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들, 난민가정의 자녀들과 외국에서 태어나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그들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이주배경아동,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주배경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나라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이들에 대한 "보호, 통합,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차례에 걸친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불발을 애 통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가입하였습니다. 아동이 정부에 등록되고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인종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야 참된 선진국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주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주사목에 종사하는 사제들과 함께 '이주민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계를 바로 인식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2017년 4월 30일 제103차 세계 이민의 날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옥 현 진 시몬 주교



\*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목적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민의 날'을 지내고 있다. 주교회의의 2000년 춘계 정기 총회에서는 해마다 '해외 원조 주일의 전(前) 주일을 '이민의 날'로 지내기로 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이 이민의 날을 5월 1일(주일인 경우)이나 그 전 주일에 지내 오고 있다.

## 이주민을 위한 기도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와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고국과 가족들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위로해주시며,  
 빈곤과 폭력과 박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인도해주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주민들과  
 서로 한 형제임을 깨닫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치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이 땅에서 이주민과 난민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필리핀공동체 소식\*



부활 대축일을 일주일 앞둔 4월 9일, 혜화동 성당에서 봉헌된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에서 필리핀 공동체 신자들이 수난 복음을 연극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날 미사는 필리핀 공동체 신자가 모인 가운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행렬예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핀 공동체 사제는 신자들 손에 들린 성지 가지를 축성하는 전례 예식을 가졌으며, 특히 이날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복음 내용을 연극으로 꾸며 성당에 모인 신자들에게 2000년 전 예수 수난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어린이집 입학식 | 생일잔치 ▶



\* 공지 : 이민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제9회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이주민 축복 나눔 행사가 올해로 9회를 맞이합니다. 이번 행사는 4월 30일 (일) 오후 1시 30분에 명동대성당과 성당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1부 축복미사(유경춘 주교님 주례)로 시작하여 제2부 국가별 음식 나눔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난 이들이 타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후원회원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